

“소극장 연극 활성화 위해 작은 씨앗 돼야죠”



연극인 김태희(46·혜성(본명 태웅)씨는 5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다. 형 태희씨는 배우로, 동생 혜성씨는 작가로 활동하며 연극과 영화판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낙향했다.

광주로 돌아온 형제는 광주한국방송연극영화예술원을 인수,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난해에는 극단 ‘스토리 박스’를 창단하고 예술원 4층에 60석 규모의 소극장 ‘용’도 오픈했다. 본격적으로 광주 연극판에 등지를 튼 셈이다.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중앙초등학교로 전학온 두 사람은 광주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태희씨는 석산고 1학년 때 극단 ‘까치놀’ 창단 멤버로 참여하며 연극을 시작했다. 1989년부터 서울 대학로로 올라가 극단 ‘춘추’에서 활동했던 그는 상명대를 거쳐 현재 중앙대 대학원에서 연극을 전공 중이다. 1995년부터 10년간 국립극단에서 활동한 태희씨는 괴테의 ‘파우스트’, 유진 오닐의 ‘뱀으로의 긴 여로’, 쉐릴의 ‘군도’ 등 고전 정극 작품에 꾸준히 참여하며 연

형 태희씨

석산고 때 ‘까치놀’ 창단멤버

서울 춘추·국립극단원 활동

영화 ‘강남 1970’ 출연도

광주 연극판에 ‘등지’ 김태희·혜성 쌍둥이 형제 극단 ‘스토리 박스’ 창단·소극장 ‘용’ 오픈 창단 작품 ‘잊지 말아요’ 27일~2월 8일

기 실력을 쌓았다. 또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 오디션에 합격한 후 영화 쪽에서도 꾸준히 일하고 있다. ‘천년학’, ‘취화선’, ‘개벽’ 등 임권택의 작품이라면 작은 역이라도 의리 출연했고 최근에는 ‘타짜 2’, ‘강남 1970’, ‘개를 완벽하게 춤추는 방법’ 등에 얼굴을 비쳤다.

동생 혜성씨는 전남고를 거쳐 서울에대 극작과를 졸업했다. SBS코미디 작가로 방송에 입문, MBC ‘베스트 극장’, ‘경찰청 사람들’, KBS ‘드라마 게임’ 등에 참여했다. 드라마 ‘종합병원’ 팀에 합류했을 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6개월간 먹고 자며 글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글 쓰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그는 오랫동안 글 쓰는 것을 잊고 살았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혜성씨는 “작가는 불안정하니 직장인이 되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낙향, 광주 평화방송 PD로 7년간 근무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글 쓰는 데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꼭 내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두고 만지하는 심정이었죠. 내 자식을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틈나면 희곡을 쓰곤 했지만 늘 글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데 대해 아쉬움이 있었

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후 본격적인 글 쓰기를 시작했죠. 보통 새벽 4시까지 글을 쓰는데 노트북에 붙어 들어오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김혜성)

2004년부터 혜성씨는 서울 연극판에서 희곡을 쓰고 연출을 했다. 2009년부터는 김천과학대 연기무지컬학과에서 ‘희곡 작법’ 등을 가르쳐왔다. 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희곡 전공으로 석사를 받았다.

극단을 창단하는 데는 서울에서 활동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다. 두 사람은 최근 몇년간 서울 우석대학교 극장 등에서 ‘정신병동 연쇄 살인사건’, ‘브라보 마이라이프’ 등을 무대에 올려왔다.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됐고, 시행착오도 거쳤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다.

형제는 극단을 만들며 두 가지 꿈을 생각했다. 우선 광주의 소극장 연극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광주의 공연 문화를 키우는 작은 씨앗이 되면 좋겠다는 꿈이다.

“광주 뿐 아니라 지방의 소극장 연극은 고사 상태입니다. 영화의 거대 자본이 스크린을 독식하면서 잘 만든 저예산 영화들이 아예 관객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공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연 문화에서 다양성은 포기해서는 안되는 부

분이지요. 서울 대학로에 소극장이 고작 10개였던 시절부터 대학로서 부대였습니다. 힘들다는 건 각오하고 있어요. 단 한명의 관객이 찾아오더라도 좋은 작품을 보여준다는 각오로 열심히 땀 생각입니다.” (김태희)

두 사람은 대한 민국 현대사의 가슴 아픈 사건들을 열전식으로 엮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와 예술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그 아픔을 잊지 않아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단 작품 ‘잊지 말아요’(27일~2월 8일, 화~목 오후 7시30분, 금~일 오후 4시~7시30분)는 지난해 계속된 대형 참사에서 소재를 얻은 작품이다. 폐광이 된 후 관광용으로 활용되던 막장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를 겪는 주인공들을 통해 시대를 들여다본다.

쥬크박스 음악극 형식으로 진행되며 혜성씨가 희곡을 쓰고 배우로도 출연한다. 태희씨는 음악 등 스템으로 참여한다. 문의 062-227-11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생 혜성씨

서울에대 극작과 출신

광주 평화방송 PD로 7년

2004년부터 희곡 쓰고 연출



구술 유통으로 본 동아시아 교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9~31일 국제학술대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와 (재)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이영철)은 공동으로 29~31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구술의 유통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교섭’을 주제로 2015년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소재의 희소성과 색채가 주는 신비감을 지닌 구술(口傳)은 오랜 옛날부터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작곡자의 신비나 위

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치례걸이(장신구)로 사용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과거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술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의 상호 교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29일에는 상감유리 제작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30일에는 최성락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한국, 일본 중국 등 전문

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 관장의 기조 강연 ‘구술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시작으로 안지아아오 중국사회과학원 교수의 ‘중국 북쪽의 유리구슬’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31일에는 권오영 한신대 교수, 유병하 국립전주박물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의 061-382-0001. /김경민기자 kki@

허달용 광주민족미술인협회장 선출

(사)광주민족미술인협회(이하 광주민미협) 제5대 신임회장에 허달용 작가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까지 2년이다.

허 신임회장은 최근 광주시 동구 동명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제9차 광주민미협 정기총회’에서 조정태 회장의 뒤를 이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허 회장은 “광주미술계의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민미협은 매년 ‘5·18광주민중항쟁 기념전’, ‘우공이산전’, ‘무등산사랑사생실기대회’ 등을 주최하고 있으며, 마을문 화아카데미와 문화예술교육, 공공미술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한편 허 회장은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회장, 광주민중총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



시립극단 청소년 연극아카데미 ‘늘품 3기’ 발표회

30일 공동예술극장

광주시립극단 청소년 연극아카데미 ‘늘품 3기’가 오는 30일 오후 5시 공동예술극장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공연 작품은 조지오웰의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동물농장’이다. 이 작품은 한 농장의 동물들이 주인을 내쫓고 평등, 평화로운 농장을 세우지만, 결국 동물들 사이에서도 권력싸움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연극은 동물들의 욕망에 초점을 맞춰 각색했고, 이미지극 형식으로 한 시간 동안 공연된다.

늘품 3기는 중·고등학생 13명이 1월 한달 간 참여한 워크숍프로그램이다. 신체 훈련, 희곡분석, 연극이론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을 완성했다. 공연 후에는 늘품3기 수료식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



테너 김홍석·작곡가 구희영 한국음악상 공로상 선정

테너 김홍석(빛고을시민문화관장·왼쪽)씨와 작곡가 구희영(서명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2014 한국음악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음악협회(이사장 김용진)가 수여하는 한국음악상은 1979년 제정된 이래 국내외 음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